

# 2011.6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1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1.6.28	대전MBC 대회의실	6/11	6	

○시청자위원 불참자(5명) 명단: 여운철, 김재영, 안정선, 유치벽, 신현대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임양재 보도국장, 정갑관 기술국장, 장래균 기획심의 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4	-	2	15	-	15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3	12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건	1건	
보도	<시사분석>의 다시보기에 부제를 명기하면 좋겠다.	<시사분석>다시보기에 부제 명기 바로 실행	2011.5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교양	<시사플러스>새로운 진행자 발음이 정확하여 좋다. 그러나 다소 딱딱한 진행이 아쉽다. 진행자 멘트가 적어 진행자 힘이 부족한 인상을 준다.(김진국 위원)	보다 여유를 갖고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조치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기타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광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김진국 위원)	전산실에 바로 시정조치 하였다.	수용
보도	<시사분석>의 6월 아이템이 좋았고, 새로운 진행자가 안정된 모습이라 좋았다. (김진국, 김영광 위원)	시의적절한 아이টে을 찾아내고, 진행자가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시사분석> 진행자 마이크에서 가끔 잡음이 난다.(김진국 위원)	주의하도록 전달하였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시사분석>패널의 대담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대전 시티즌'편은 시티즌 측 패널이 안 나와 깊이가 떨어진 인상을 준다. (김진국 위원)	시티즌사장은 당시 자숙중이라 나오지 못했고 시청 국장이 나왔으나 적절한 대처를 못한 것 같다. 균형적인 패널 선정에 더욱 신경쓰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그 때 그 선거 즈음엔'은 주제가 좋았다. 기회가 되면 '충남'편도 방송했으면 좋겠다.(김경숙 위원)	선거관련 선심성 사업은 혈세 낭비로 직결될 우려가 있는만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노동자는 일하고 싶다'편은 노,사측 입장을 비교적 공정하게 다뤘다. '비폭력 파업' '경제적 손실' 부분도 균형있게 다뤘으면 더 좋았겠다.(김경숙 위원)	노사문제는 항상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대리기사 일어나다'편은 6개월만에 후속보도가 좋았다. 불합리한 수입구조를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게 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도 관심도가 높은 소재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후속보도를 통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정방송에 힘써달라.(방기봉 위원)	특히 노사가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기타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의 '첫 날의 약속'글이 공감 많이 갔다. <건강플러스> 개편 후 홈페이지에 일요일로 날짜 변경이 고쳐지지 않았다.(김경옥 위원)	홈페이지 오기를 바로 시정 조치하였다.	수용
보도	'지하철 2호선' '시티즌 사태' '대학 등록금'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다. 뉴스에서 심도있게 다뤘으면 한다.(김영광 위원)	대전지하철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다. 계속 후속 보도를 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지자체장 1주년' 보도는 자치단체장 입장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시민들의 인터뷰도 필요하다고 본다.(김영광 위원)	다음부터는 전문가와 시민, 도민들의 평가도 반드시 넣도록 하겠다.	보도 수용
보도	주말 앵커는 다소 어색한 느낌을 준다. 조명, 분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김영광 위원)	분장과 조명 등을 지속적으로 손보가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다. 점차 나아지고 있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지하철 2호선'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계속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장인순 위원)	시사분석 시간에 지속적으로 다뤄 나가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반값 등록금' '유성기업 사태'는 심도있게 보도하되 대학, 기업의 입장도 같이 다뤄야 공정성을 담보한다.(장인순 위원)	첨예한 문제는 양쪽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마녀사냥식 보도는 지양하도록 하겠다.	보도 의견참고